

'91년을 환경관리인의 — 정책을 감시하고, 사회에

* 친애하는 전국의 환경관리인 귀하 *

친애하는 전국의 환경관리인 여러분!

91년 새해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 한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7천 환경관리인 여러분의 해로 만들어야 하겠기에 여러분 모임의 고문으로서, 이 나라 환경인의 한 사람으로서 칼럼을 빌어 여러분에게 공개 서한을 보냅니다.

환경관리인 여러분!

이 한 해를 여러분의 해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권익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단 하나뿐인 지구에서 단 하나뿐인 조국의 환경을 더 이상 파괴와 오염의 늪속에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관리인 여러분!

오늘의 지구 환경은 여러분이 평가하고 있는 것 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심각한 환경은 거의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지금 이미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오존층 소멸문제와 벌써 남·북극의 빙하와 빙산이 녹아 지구의 해수면을 착실하게 상승시키고 있는 지구 온난화 문제 그리고 지구의 전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는 산성비와 산성눈은 지금 이 시간에도 빠르게 확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문제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미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피해를 멈추자면 그에 따른 생태학적 시간이 필요한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게 오늘의 비극입니다.

즉, 지금 당장 전세계가 기적적으로(현실적

으로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만) 오존층을 소멸시키는 CFC화학물질과 온실효과와 산성비를 유발하는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의 연소를 중지한다고 하여도(사실 그것 자체가 세계의 종말입니다)이미 진행된 오존층 소멸과 온실효과 그리고 산성비는 상당한 기간(적어도 50년에서 1백년 이상)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아, 지구의 미래는 불안한 것입니다.

이런 위협적인 지구의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세계의 국가가 공동으로 지구 환경보호의 의지와 노력(완전한 개선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의 피해를 최대한 축소하고, 지연시키는 방법)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마를 기다리는 폐수와 달 없는 밤에 매연을 내뿜는 공장 굴뚝 그리고 산업폐기물의 불법 처리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전 근대적인 범죄공해가 판을 치고 있어, 지구 환경오염에 앞장 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공해선진국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공해대국으로 이끌고 있는 원인자는 안타깝게도 몇몇 특정 세력만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총체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대량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을 유발하는 대량생산을 부추키는 대량소비의 국민 소비의식과 이윤추구만을 생각하는 대다수 기업의 기업의식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이익으로 평가하는 근시안적인 국가정책이 우리나라를 세계 공해대국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해로 만들자 참여하라! —

환경관리인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오염의 최 일선 현장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위치는 155마일의 휴전선을 지키는 국군의 위치만큼 중요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일컬어 여러분들을 “오염의 파수꾼”, “환경보호의 첨병”이라고 말로는 상찬하지만 실제의 처우는 정부로 부터는 “양벌의 대상”, 기업으로 부터는 “평생 관리인”이라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러나 환경관리인 여러분!

진심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지탱해주는 사람은 높은 위치의 관리가 아니라, 비록 음지일 망정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실천자인 것같이, 이나라의 환경을 진심으로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환경관리인 여러분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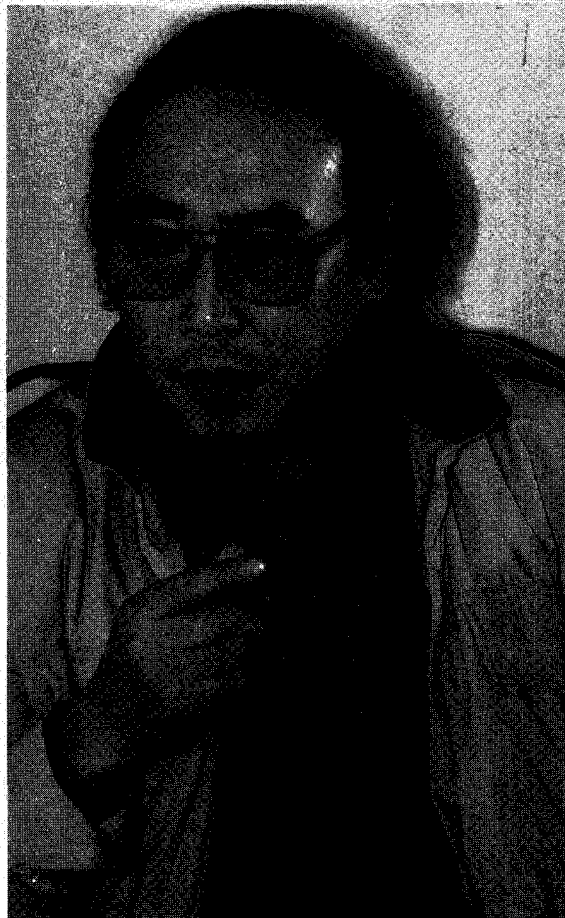
이런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어느 골목 길을 지나가는데, 남의 집 담을 넘는 도둑의 현장을 목격 했다고 합시다. 그럴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 것 입니다.

소리쳐 도둑을 쫓는 일, 달려 들어 도둑을 잡는 일, 경찰에 신고하는 일 등 입니다. 아니 요즘 세태와 같이 내 일이 아니니 못 본척 그냥 지나치는 방법도 있을 것 입니다.

환경관리인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는 어느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물론, 방관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소리쳐 도둑을 쫓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단 하나뿐인 지구는 물론,
우리나라 환경은
우리손으로 지키고 보호한다는
승고하고 희생적인
사명과 각오로
91년을 환경관리인의 해로
만들길...



**희생은 가치를 수반합니다.
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희생없이
새로운 희망을 창출해 낼 수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희생은
이나라 아니 더 나아가 단 하나뿐인 이 지구의
환경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은 <달려 들어 도둑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희생이 따르는 것 입니다.

환경관리인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되는데는 피할 수 없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오염의 실상을 알아버렸습니다. 즉, 오염이 무엇이고 그 피해의 양상이 무엇이 될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모두가 쉽고, 편하기만 해서 아무 것도 안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더구나 오염의 경우는 그 대처에 쉽고, 편해서는 사회를 더욱 병들게 하고, 나라를 망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희생적으로 오염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은 가치를 수반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희생 없이 새로운 희망을 창출해 낼수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희생은 이나라 아니 더 나아가 단 하나뿐인 이 지구의 환경을 지킬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91년 이 새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관리인 여러분!

91년 새해가 여러분의 해가 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1. 공부하는 환경관리인이 되십시오!

오늘의 위치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항상 공부하는 환경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다양하고 다변한 학문입니다. 따라서 환경문제와 직접 연관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친 폭 넓은 공부를 하십시오.

애써 시간을 만들어 1년에 시집 두어권, 철학서적 몇 권 읽는 그런 노력이 필요 합니다.

2. 환경관리인은 사생활적 측면에서도 환경보호 생활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직업만 환경관리인이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사생활에도 환경보호의 생활화를 실천해 다른 사람에게도 환경보호의 생활화를 권유해야 합니다.

* 직장과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숙선 하십시오.

낭비되는 한방울의 물, 한등의 전기가 모두 여러분의 희생을 강요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 가정에서 세탁기를 추방하십시오.

대가족 등으로 어려우시면 세제 대신 동물성

유지의 빨래비누를 갈아서 세탁기에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웃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자녀들이 물건을 아껴 쓰도록 관심을 가지십시오. 노트의 경우 처음에는 연필로 쓰고, 다음에는 그 연필 글씨 위에 볼펜으로 쓰고, 그 다음에는 그 볼펜 글씨 위에 굵은 사인펜으로 쓰는 3단계 필기법을 지도하십시오. 다른 어린이들이 본 받도록 여러분의 자녀가 앞장 서도록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 만이라도 1회용 물건 사용을 억제하시고, 1회용을 애써 다회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을 보여 주십시오.

3. 조직의 힘을 키워 정부의 정책을 감시 합시다!

우리나라의 오염은 정부의 가시적이며, 근시안적인 정책이 더욱 조장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염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감시자적 기능으로 임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단결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국내 환경분야 조직에서는 제일 막강하고, 국내 환경분야 잡지에서는 최고(지면·발행부수 등)의 회보를 발행하고, 1년에 한 두어번 세미나를 갖는 등의 활동에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91년 부터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환경보호 일선에 참여하도록 더욱 조직을 강화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이익 보다는 국가의 정책에서 반환경보호적인 정책이 도출될 때에는 과감히 이를 저지하는 단합된 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4. 오염의 현장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금년 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 됩니다.

물론,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꽃이기는 하지만, 잘못하면 지역의 자연과 환경을 더욱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환경

과수꾼으로서의 여러분들은 이번 지방자치제 선거를 정치적 행사의 일환으로 방관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현실에 뛰어들어 정말 개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지방자치제 선거에 후보로 참여해 주십시오.

*개발과 성장 보다는 지역의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힘을 기울일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개인과 조직의 힘을 동원해 주십시오.

*환경보호를 위하여 공개적으로 지지의 향방을 천명하십시오.

친애하는 전국의 환경관리인 여러분!

91년은 이나라 환경사에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한 해에 뚜렷한 환경보호 의지가 실천되면 우리나라의 환경악화는 조금 둔화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지난 과거와 같이 개발과 성장만으로 눈이 어두워 파괴와 오염의 해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환경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결과를 맞이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의 향방과 책임은 오직 여러분들 환경관리인의 자세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나라의 환경문제는 정당한 기술평가와 단결된 조직력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환경관리인 여러분!

단 하나뿐인 지구는 물론, 우리나라의 환경은 우리 손으로 지키고 보호한다는 숭고하고 희생적인 사명과 각오로 91년을 전국의 환경관리인의 해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길만이 이나라 4천5백만 민족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처음이며, 마지막 길입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환경관리인 여러분!

올해에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 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1991년 1월 새해 아침에

박 창 근 드림

<筆者: 本會 顧問/UNEP 글로벌 500 委員>